

한림대병원, ‘우주 의학시대’ 첫 발

누리호에 ‘바이오캐비닛’ 탑재
인공장기 등 의료기술 실증 목표
박찬흠 교수 “생명공학 연구 기여”

우주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주 의학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찬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우주 생물학 연구 탑재체 ‘바이오캐비닛(Bio Cabinet)’이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에 탑재돼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바이오캐비닛은 무게 55kg, 크기 790×590×249mm로, 바이오 3D 프린터와 줄기세포 분화 배양기를 포함한 첨단 연구 탑재체다.

지구에서는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신속한 진료가 어렵고, 지구 귀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바이오캐비닛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주 공간에서 생체조직을 신속히 제작하며 질환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우주 의료 기술’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무 수행 기간은 60일이며, 세포 상태와 연구 목적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찬흠 교수는 발사 과정의 충격과 우주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세포를 배양하고 분화시키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고안했다. 또한, 국제우주



박찬흠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가 ‘바이오캐비닛’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거장 사용 권한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완전 자동으로 작동하는 3D 프린터를 직접 제작했다.

탑재체에는 두 가지 바이오 모듈이 있다. 첫 번째 모듈은 역분화 심장 줄기 세포를 이용해 심장 조직을 3D 프린팅하고, 세포가 스스로 수축하며 박동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이 세포는 사람의 체세포에서 심장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킨 것으로, 실제 심장 세포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재현할 수 있어 인체에 실제 활용 가능한 인공 심장 조직체다.

두 번째 모듈은 편도(Tonsil)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사용한다. 편도는 인체에서 대량으로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조직으로, 면역 기능 및 줄기세포 생존력이 높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혈관 세포 분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캐비닛은 향후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인공장기 제작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주의 압력·온도·방사선 등 영향을 받은 바이오 환경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확보하며 우주 의생명 연구 분야에서 국가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첫 사례가 됐다.

박찬흠 교수는 이번 바이오캐비닛 발사를 발판으로 우주 의생명공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우주 개발이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CT·MRI·인터넷 처럼 미래에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기술을 낳는 ‘꿈을 먹고 사는 분야’라며, “지속적인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 의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적응증 확대 박차

내달 美 뇌전증학회 학술대회 참가
전신 강직-간대발작 연구 등 성과 공유

SK바이오팜 미국 자회사 SK라이프 사이언스가 오는 12월 5~9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2025 미국뇌전증학회(AES) 연례 학술대회’에서 세노바메이트 후속 연구결과를 총 10건의 포스터 발표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산 신약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적응증에 전신 강직-간대발작(PGTC)을 추가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성과를 글로벌 뇌전증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특히 청소년 및 성인 대상 PGTC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이 최신 임상

연구 초록으로 선정됐다. 이는 SK바이오팜이 지난 9월 공개한 전신 발작 임상 탐라인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세노바메이트가 광범위 항발작제로서 폭넓은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을 임상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또 현재 경구용 정제 형태로만 상용 가능한 세노바메이트의 새로운 제형인 ‘경구용 현탁액’에 대한 임상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해당 연구에서 정제와 경구용 현탁액 간의 상대적 생체이용률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투여 가능성이 입증됐다. 해당 연구 결과에 힘입어 경구 현탁액 제형에 대한 신약승인신청서(NDA)를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부분 발작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PK 분석 결과에서도 성인 승인 용량(100~400mg, 1일 1회 투여)과 유사한 약물 노출이 확인되어, 12세 이상 연령층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의 수니타 미스라 글로벌 임상개발 및 메디컬 담당 부사장은 “이번 AES 2025는 세노바메이트의 전신 발작 치료 가능성을 임상적으로 확인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뇌전증 치료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세노바메이트 관련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의결… SPC 합병 추진

사업 부문, 투자·관리부문 분리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조직 개편을 위한 물적 분할에 나선다.

파리크라상은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임직원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분할은 현재

지분 구조상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파리크라상의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분리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파리크라상은 올해 안에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

PC와의 합병 절차도 병행한다. SPC는 그룹 계열사의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 법무, 홍보 등 공통 지원 업무를 맡아온 조직으로,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인력은 전원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근로조건·복리후생·퇴직금 등은 변동 없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회사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개편 적극 대응

비대위 구성 결의… 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가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사진)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번 긴급 회의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



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의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기로 했다.

비대위는 국내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 알리고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양바이오팜, 코스피 상장… 상한가 직행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첫 날 30%↑

삼양그룹은 의약바이오 전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양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매수세가 몰리며 시초가 보다 6950원(29.89%) 오른 3만2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후 직상장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소유하게 되어 청약 절차 없이 상장됐다.

이를 계기로 삼양바이오팜은 성장 잠

재력과 기술력을 해당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파트너 및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진출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해졌다.

앞으로 삼양바이오팜은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등 스페셜티(고기능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진 삼양바이오팜 대표는 “삼양바이오팜이 가진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그룹 전체의 밸류에이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크리스마스’ 주제 팝업 운영

팝마트코리아 협업… 내달 1일부터

CJ올리브영이 ‘팝마트 코리아’와 협업해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올리브영 N 성수에서 ‘2025 올리브영 어워즈X팝마트’ 팝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팝마트 크리스마스 마을’을 주제로 열린다. 작은별, 라부부 등 팝마트 7대 캐릭터 상품과 2025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 상품을 소개한다.

먼저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적용한 팝마트 캐릭터 상품을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다. 작은별 노트, 라부부 피규어, 크라이베이비 휴대폰 스트랩 등 약 100개의 트렌디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 상품도 선보인다. 올해는 처음으로 어워즈와 글로벌 캐릭터를 연계해 진행한다. ‘산타의 우체국’을 꾸며 국내외 소비자에게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았던 대표 상품을 소개한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광동제약 가글액 ‘광동 인후엔’

광동제약은 환절기 독감 예방을 위한 구강 및 인후 관리에 효과적인 가글액 ‘광동 인후엔(사진)’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동 인후엔은 국내 최초 물에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포비돈 요오드 주성분의 일반의약품이다.



의성을 높였다.

제품은 100ml 규격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